

허경환 "나 급하다"...결혼 의지 깜짝 고백

등록 2026.06.01 08:48:36



[서울=뉴시스]'말자쇼'(사진=KBS2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허경환이 결혼 의지를 보였다.

1일 오후 9시30분 방송되는 KBS2 '말자쇼'는 '시트콤 같은 인생'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게스트로는 '황금 기수'로 불리는 KBS 22기 출신 허경환이 출연한다.

객석에서는 허경환이 이상형이라는 여성 관객이 등장한다.

다만 그는 키가 177cm라며 "허경환보다 키가 큰데 허경환이 괜찮아할지 고민"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MC 정범균은 "KBS 22기 남자 개그맨 중 미혼은 허경환과 양상국만 남았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냐"고 묻는다.

이에 허경환은 "양상국은 여유가 있는데 나는 급하다"고 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